

보도시점 (전매체) 3. 30.(목) 10:00

중소기업이 주역이 되는 세계(글로벌) 수출강국

- 제1차 중소기업정책심의회 개최, 주요 수출정책 논의
- 세계(글로벌) 강소기업 1000+ 선정기업, 최대 100억원 정책금융 지원
- 보육입주 → 관계망(네트워킹)·협업 중심으로 글로벌 비즈니스센터(GBC) 전면 개편
- 수출 주도(드라이브)를 위한 ‘민·관·연 중기(中企) 수출활성화 전담조직(TF)’ 출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3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제1차 중소기업정책심의회 겸 민·관·연 중소기업 수출활성화 전담조직(TF) 출범식’을 개최했다.

세계(글로벌) 경기 둔화, 반도체 가격 하락 등 대내외 어려운 수출 여건에서 관계부처·수출 유관기관·기업인들이 모여 수출 상황을 점검하고, 중소기업의 수출 활력 제고 방안 등을 논의했다.

* (주요 논의사항) △ 세계(글로벌) 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 실행 및 글로벌 비즈니스센터(GBC) 개편전략 △ 민·관·연 중소기업 수출 활성화 전담조직(TF) 운영계획 △ 중소기업 지원체계 개편방향 : 혁신성장·민간협업 촉진 중심으로 등

특히, 지난 1월 대통령 아랍에미리트(UAE) 순방 이후 신(新) 중동열풍(붐) 확산을 위한 중소기업부의 대외 경제협력 성과를 공유하고, 3월 한일 정상회담 후속조치 일환으로 대일본 수출지원을 위한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안건 논의에 이어 중소기업 수출 위기 극복 및 수출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유관기관·연구기관 등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연 합동 중소기업 수출 활성화 전담조직(TF)」를 구성하고 출범식을 개최했다.

회의를 주재한 이영 장관은 “심화되는 세계(글로벌) 경쟁에서 선도자(퍼스트 무버)로 나아가기 위해선 세상에 없는 새로운 물건을 만들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라고 언급하면서, “수출은 혁신의 검증대로서 우리 경제의 활력 제고를 위해 매우 중요하며, 혁신의 중심은 다름 아닌 우리 중소·벤처·창업기업(스타트업)”이라고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는 수출과 중소·벤처·창업기업(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해 관계부처와 적극 협력하고, 기업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등 중소벤처기업 지원에 모든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하였다.

아울러, “수출 활성화의 성패는 상대국과의 우호적인 협력관계가 얼마나 잘 구축되어 있는지에 달려있다”고 하면서, “중소기업 수출의 주무 장관으로서 2027년까지 중소기업 직·간접 수출 비중 ‘50%+’와 ‘해외진출 창업기업(스타트업) 5만개 달성’을 목표로 백방으로 뛰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였다.

이날 논의된 안건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세계(글로벌) 중소기업 1000+ 사업(프로젝트) 실행 및 글로벌 비즈니스센터 개편전략 >

세계(글로벌) 경기침체 영향으로 수출 감소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중소기업이 주도하는 수출 강국 실현을 위해 강력한 주도(드라이브)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국내·외 밀착지원을 위해 ‘세계(글로벌) 중소기업 1,000+ 사업(프로젝트)’과 전세계 주요 교역 거점에 ‘글로벌 비즈니스센터’ 구축을 추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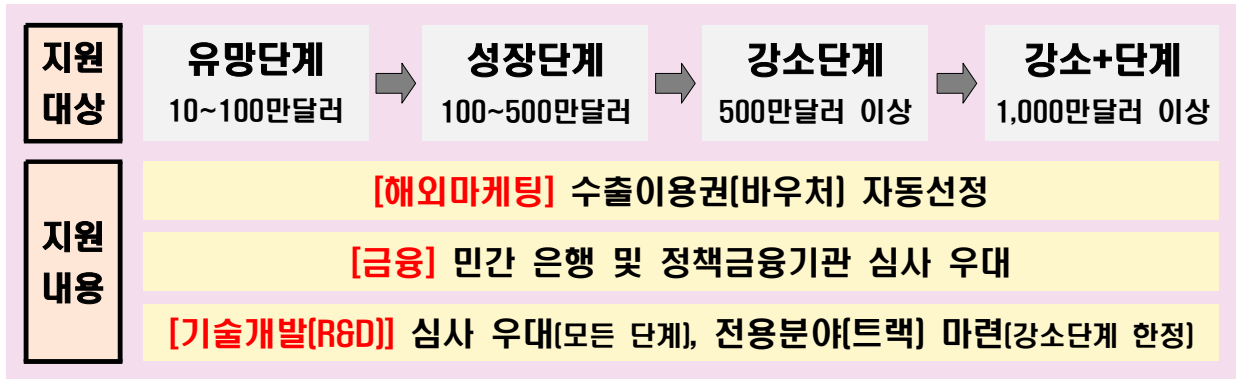
① 세계(글로벌) 중소기업 1000+ 사업(프로젝트) 관련

‘세계(글로벌) 중소기업 1000+ 사업(프로젝트)’는 수출국 다변화 전략 등을 갖춘 유망 수출기업 1,000여개사를 단계별(유망-성장-강소-강소+)*로 선정하여, ‘수출이용권(바우처)’를 평가없이 자동 지원하고 해외마케팅, 시중 은행·정책금융의 금리·보증료 우대 등 강력한 묶음(패키지) 지원을 제공한다.

* 세계(글로벌) 유망 (10~100만달러) → 성장 (100~500만달러) → 강소 (500만달러 이상) → 강소기업+ 4단계 (1,000만달러 이상)

또한, 중소기업(수출액 500만 달러 이상)에 대해서는 수출이용권(바우처), 기술개발(R&D) 등 7억원의 묶음(패키지) 지원과 정책금융(중진공 최대 100억원, 기보 70억원) 연계,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 우대지원(가점 5점) 등을 통해 수출 선도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 「세계(글로벌) 중소기업 1,000+ 사업(프로젝트)」 지원내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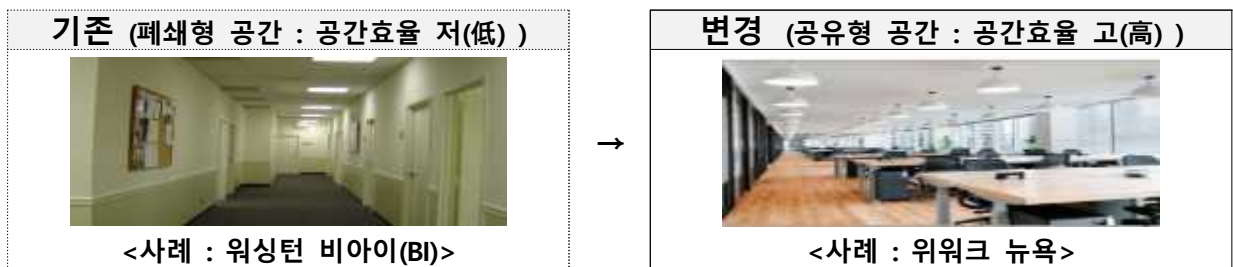


② 글로벌 비즈니스센터 개편전략 관련

‘세계(글로벌) 비즈니스센터 개편전략’은 그간 보육·입주 기능 중심의 독립실 형태로 운영하던 수출인큐베이터(BI)를 관계망(네트워킹)·협업이 가능한 공유 사무실(오피스) 형태의 개방형 공간인 “글로벌 비즈니스센터(GBC)”*로 개편하는 내용이 골자이다.

* 뉴욕, 도쿄, 두바이 등 전세계 주요 교역거점에 12개국 20개소(267개사 입주) 운영

< 세계(글로벌)비즈니스센터 공간구성 변경(예시) >



공유공간으로 개편과 함께 국가별 특성을 고려하여 제품·서비스의 현지화, 해외인증 획득, 현지 금융기관의 법인계좌 개설 등 센터별 특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수출지원 효과를 제고한다.

이외에도, 입주기업-현지 한인·동포 협·단체 간 정례적 교류행사 개최 등을 통해 글로벌 비즈니스센터를 국내외 기업인의 협업거점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 민·관·연 합동 중소기업 수출활성화 전담조직(TF) 운영계획 >

'22.6월 이후 감소세인 중소기업의 수출을 반전시키고 수출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민·관·연 중소기업 수출활성화 전담조직(TF)'를 구축하고 총력 대응체계를 가동한다.

전담조직(TF) 활동은 수출유관기관, 중소기업 협단체 대표, 연구기관, 수출기업이 함께 참여하여 매월 중소기업의 수출여건 및 동향, 기관별 수출 지원 정책 추진현황 등을 면밀히 점검·관리해 나가는 한편,

지난 1.26일 발표한 '중소기업 수출활성화 방안'이 현장에서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수출기업군*별 간담회 등과 병행 운영하고, 현장의 애로 청취 및 건의사항 해소에도 노력하는 등 업계와 밀착 소통해 나갈 예정이다.

* 세계(글로벌)중소기업, 수출다변화기업, 디지털수출기업, 수출전환 내수기업(간접수출) 등

또한,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간 경제협력 분야 활성화를 위해 우리 중소기업의 일본 수출과 현지 진출 확대를 위한 지원방안과 협력사업 추진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이다.

담당 부서	중소기업정책관 정책분석평가과	책임자	과 장	이덕희 (044-204-7460)
		담당자	사무관	남기동 (044-204-7462)
	세계(글로벌)성장정책관	담당자	주무관	서윤주 (044-204-7466)
		담당자	과 장	김봉덕 (044-204-7500)
	세계(글로벌)성장정책과	담당자	서기관	백진욱 (044-204-7501)

□ 설치 목적

- 중소기업 주요 정책 및 계획과 이행에 관한 심의·조정을 위해 중소기업정책심의회 설치·운영(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4)

□ 심의회 구성

- 위원장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위 원 : 당연직 14명, 위촉직 15명
 - △ (당연직) 기재부, 과기정통부, 법무부, 행안부, 문체부, 농림부, 산업부, 환경부, 고용부, 여가부, 국토부, 해수부, 공정위, 금융위 등 14개 부처 차관급
 - △ (위촉직) 중소기업 관련 협·단체장, 업계·학계·연구기관 대표 등

< 위촉직 위원 현황('23.3월기준) >

소 속	직 위	성 명
중소기업중앙회	회 장	김기문
소상공인연합회	회 장	오세희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 장	이정한
산업연구원	원 장	주 현
중소기업연구원	원 장	오동윤
법무법인 위민	변호사	김남근
서강대학교	교 수	김용진
송실대학교	교 수	최자영
서울대학교	교 수	유병준
(주)포인트모바일	대 표	강삼권
(주)다산네트웍스	대 표	남민우
(주)피씨엘	대 표	김소연
(주)플래너리	대 표	이나리
(주)핑스플로우	대 표	이수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이승신

참고2

민·관·연 중소기업 수출활성화 TF

□ TF 구성

- 위원장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위원 : (업계) 벤처기업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이노비즈협회
(연구기관)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유관기관) 중소기업중앙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대중소농어업협력재단,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 민·관·연 중소기업 수출활성화 TF 구성체계도 >

